

## 2022 고난주일

### 비교의식에서 드디어 자유를 얻다. (고난의 의미)

[빌립보서 2:6-11]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 1. 가장 특별하고 비범한 예수님

[빌립보서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다. 본체라는 것은 '형상'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본질의 됴됨이 '본성'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모든 존재의 본질을 말한다. 아름다움, 완전함, 능력의 본질이다. 영어로 말하면 특별함, 비범함의 존재(extraordinary)를 말한다. 가장 특별하고, 위대하고, 능력이 있는,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히브리서 1:3-4] 3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4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경배한다. 사람은 가장 특별한 존재에 반응한다. 가장 특별한 존재를 경배하고 숭배한다. 그래서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자 한다. 정점에 서고자 한다.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절대적 자리에 앉고자 한다.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욕망적 본능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관심이 있다. 소유의 목적은 존재를 부각 시키기 위함이다. 몸을 치장하는 옷도, 보석도, 자동차, 지위, 주거지, 모두가 소유의 숭배 대상이 된 이유는 특별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에 있다.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존재가 되면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이 주어진다 (시상식의 이유). 사람들은 환호하고 열광한다.

#### 2.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시편 8:5-6]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같은 절대적 존재, 특별한 존재 (extraordinary)이다. 이 사실을 아는가? 완성된 존재라는 것이다. 부족함과 결핍이 없는 존재이다. 사람은 원래 비교를 모르는 존재이다. 그래서 경쟁이 없다. 경쟁이 없으니 피곤하지 않고, 이기려고 소유하지 않는다. 진정한 자유는 내 안에 경쟁이 없는 것이다. 경쟁으로부터 오는 갈등이 없는 상태가 바로 존재적 평안에 있는 것이다.

왜 경쟁하려 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이다. 마귀의 미혹은 '비교'이다. 사람과 하나님을 비교한 것이다. 그 비교가 죄의 문이다. 욕망이다. 선악과를 먹은 이유이다.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사람 안에 욕망의 본능이 생겨난 것을 말한다. 채워도 끝이 없는 결핍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인간은 '소유'적 존재가 되었다.

#### \* 바벨탑

[창세기 11: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 (1) 탑

탑은 구조를 말한다. 인간이 만든 특별함이 보장되는 곳이다. 모든 영역에 특별함이 보장되는 구조(탑)가 있다. 종교의 타락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구별시키는 구조(탑)를 만들어, 그로부터 오는 권력을 소유했을 때부터 시작된다. 그 존재는 구별된 존재였다. 꼭대기 정점에 있는 하늘에 닿을 수 있는 존재였다.

### (2) 이름을 내고

이름이 알려졌다는 것, '유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다. '무명'한 존재인 사람은 '유명'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사람의 인정과 인기를 누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모든 부와 권력은 유명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유명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무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알려지지 못하는 익명의 존재가 되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현대인들을 본다. 더 이상 그 탑에 올라갈 수 없을 때, 상위 몇 프로의 특별한 존재가 되는 길이 막혔을 때 사람들은 절망한다.

### (3) 인간의 갈등 - '자기의'

모든 인간의 갈등과 문제는 바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으로부터 온다. 그 특별한 존재를 성경은 '자기'로 말한다. '자기'가 특별한 존재임을 정당화 시키는 행위가 '자기의'이다. 자기관 죄 된 옛자아의 본성을 말한다. 에덴동산에서 사탄에게 깨어진 죽어야 할 자아를 말한다. 생명 없는 자아를 말한다. 이미 죽은 몸을 말한다. 그 죽은 몸에 화려한 옷과 보석을 치장하여, 가장 아름다운 가짜 빛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자기의'이다. 자기 노력으로 절대적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기의'의 거짓 빛이다.

#### \* 정죄감 - 비참함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자기 스스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알 때이다. 그 순간을 '비참함'이라 말한다. 비참함의 영적 정의는 '사탄에게 정죄감'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네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아는가? 형편없는 존재인지 아는가?' 그래서 정죄감은 영적이다.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다. 정죄감의 결말은 존재에 대한 비참함의 감정이다. 탕자가 느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비참함이 바로 정죄감이다. 그것으로부터 오는 비참함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큰 고통이다. 특별한 존재가 되지 못한 평범함을 두려워한다.

### 3. 고난의 역설

[빌립보서 2:6-8]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니 엄청난 비밀이 있다. 특별한 분(extraordinary)이 사람의 부족함과 평범함(ordinary) 안으로 스스로 들어오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다. 너무나 특별한 분이 스스로 평범한 분이 되셨다. 아니, 평범함을 넘어 처참함의 존재가 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고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진짜 빛,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죄 된 옛 자아의 죽은 빛을 처치하시고, 진짜 참 빛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신 것이다.

#### \* 자아를 처리하시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막았던 '자아'를 처리하신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진짜 능력과 아름다움을 막았던 자아를 처리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셨다.

[빌립보서 2:9-11]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스스로 높아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은총의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곳은 모든 피조물이 진짜 아름다움의 본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경배하도록 한 자리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역설적으로 고난이 아닌 그 안에 담긴 진짜 아름다움과 진짜 능력을 묵상해야 한다. 예수의 고난 안에 있는 승리를 경배하는 기쁨의 고난주간을 보내야 한다.

### 4.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 자아가 죽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알아야 한다. 특별한 그분이 평범함 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의 평범함이 십자가 위에서 특별함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진짜 자유, 아름다움, 능력을 보는 고난주간을 기대하자.